

전문성이 갖고 있는 잠재적 단점**THE POTENTIAL DOWNSIDE OF EXPERTISE**

By Rick Boxx

영국 태생의 캐나다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사회 과학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책들을 대거 저술했다. 그는 저서 『아웃라이어』를 통해 특정 산업에서 엘리트 직무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1만 시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을 대중화시켰다. 예를 들어 비행시간이 1만 시간인 항공기 조종사 또는 건반 연습에 1만 시간 이상을 들인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주장은 일리가 있다. 만약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수천 번의 수술을 진행했던 외과 의사를 선호하겠는가? 아니면 경험이 매우 제한적인 초보 의사를 선호하겠는가?

글래드웰은 좋은 지적을 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토록 풍부한 연습과 경험도 단점이 될 수 있다. 특정 업계의 업무 수행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면 오히려 새롭고 신선한 접근방식을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태껏 해왔던 방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이것 만이 유일한 방법이야”라는 식의 태도는 기존 문제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찾고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업계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장래 당신의 성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성경은 겸손의 가치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원리를 비즈니스와 전문인 세계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언 18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언 18:12)

자신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이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변화를 위해

English-born, Canadian author Malcolm Gladwell has written a number of books offering unique perspectives on the social sciences. In his book, *Outliers*, he made popular the concept that 10,000 hours of work in any certain field is necessary to become an elite performer in that industry. For example, airline pilots with 10,000 hours of time flying aircraft, or pianists who have devoted more than 10,000 hours to practice on the keyboards. It makes sense – if you had to undergo major surgery, would you prefer a surgeon who has performed the procedure thousands of times, or a novice with very limited experience?

Gladwell makes a good point – having expertise in any field can be extremely valuable. However, an abundance of practice and experience can also have a downside. You can become so accustomed to how your particular industry conducts business, you may find yourself unwilling to consider new and fresh approaches. Even ones that could work better than “we have always done it this way” methods.

Taking the attitude, “I am the expert, and this is the way things must be done,” can present obstacles to finding and implementing new, innovative approaches to problems both old and new. Putting it simply, pride in your industry knowledge can limit your future success.

The Bible has much to say about the value of humility, and we can easily apply its principles to the business and professional world. For instance, Proverbs 18:12 teaches, “*Before destruction the heart of man is haughty, but humility goes before honor.*” It may seem hard to understand how trust in one’s expertise can lead to “destruction,” but we have seen countless examples of businesses that have failed or stagnated because their leaders’ prideful refusal to step outside their areas of expertise to make necessary changes.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기를 당당히 거부한 리더들로 인해 실패하거나 정체된 수많은 비즈니스 사례를 우리는 보았다.

전문 지식에 과하게 의존하면 “알아야 할 건 모두 다 알고 있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특히 기술의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 이러한 태도는 치명적일 수 있다. 교통, 의학, 부기, 그래픽 디자인, 식품 생산, 우주 탐사 등 각 분야의 노력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기꺼이 제쳐두고 업무 수행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극적으로 발전해왔다.

잠언 11 장 2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잠언 11:2)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시도할 때 비웃던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는가? 당시의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간은 절대 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비행 선구자들과 그 뒤를 이은 많은 사람은 이 비행이 사람들을 우주로까지 데려다줄 것임을 증명해 냈다.

저자 짐 콜린스는 그의 비즈니스 고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우수 기업의 리더들이 지닌 공통적 특징을 언급했다. 그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더 개개인을 5 가지 레벨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타인의 공로를 격려하고자 자신의 전문성을 뒤로하는 큰 겸손이었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들은 잠언 12 장 20 절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잠언 19:20)

콜린스가 시사하듯 겸손은 모든 전문인에게 중요한 성품이다. 과거의 전문 지식으로 모든 것의 해답을 안다고 착각한다면, 특히 현재의 급진적이고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에서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Overreliance on expertise can cause us to conclude, “I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this.” But in an ever-changing world – particular in areas affected by technology – this attitude can be devastating. Whether it be transportation, medicine, bookkeeping, graphic design, food production or space exploration, each of these fields of endeavor has advanced dramatically as the “experts” willingly set aside their expertise to explore new ways for getting things done.

Proverbs 11:2 tells us, “*When pride comes, then comes disgrace, but with humility comes wisdom.*” Can you imagine the people who laughed when the Wright brothers were making their first crude attempts at flying? “Man will never be able to fly,” the “experts” declared, based on their expertise at the time. Yet those flight pioneers, and the many who followed them, proved human flight would even take people to outer space.

In his classic business book, *Good to Great*, author Jim Collins cites common characteristics held by leaders of high-performing companies. He describes “Level 5” leaders, individuals driven to do what is best for the company. One of their shared traits was great humility, deferring their expertise to encourage the contributions of others.

Whether they realized it or not, they were living out the admonition of Proverbs 19:20, “*Listen to advice and accept instruction, and in the end you will be wise.*” As Collins shows, humility is an important quality for all experts. Presuming we know all the answers because of past expertise can lead to disastrous outcomes, especially in our age of rapid, unprecedented change.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글래드웰의 '1 만 시간의 법칙'에 관해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그와 비슷한 양의 시간을 투자했던 일이 있나요?

Have you ever heard of Gladwell's "10,000-hour rule"? Can you think of anything you have done, investing that amount of time – or close to it – to achieve some level of expertise?

2.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것은 왜 중요할까요?

How would you define "expertise"? Why is it important?

3. 전문성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실제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까? 전문인으로서의 경험 또는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보여준 예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Do you agree with the idea that overreliance on expertise can actually prove to be a liability? Can you think of an example – either from your own professional experience or from history – that shows that to be true?

4. 전문성과 겸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각자 애쓰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립한 사람들 가운데 종종 겸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What does it take, in your opinion,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expertise and humility? Why do you think humility is often lacking in people that have established expertise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endeavor?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잠언 11:14, 12:15, 15:22, 16:18, 21:4; 골로새서 3:12; 베드로전서 5:5

-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잠언 11:14)
-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잠언 12:15)
-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언 15:22)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 16:18)
-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잠언 21:4)
-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기뻐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골로새서 3:12)
-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베드로전서 5:5)

- 북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